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두 얼굴의 중국경제 : 2017년 중국경제 향방과 시사점

목 차

■ 두 얼굴의 중국경제 : 2017년 중국경제 향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본론	2
3.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국경제팀 :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요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미국발 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경제의 실물과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잉생산 해소, 부채 확대, 그림자 금융 확산, 부동산 재고 해소 등 네 가지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분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작년 말보다 0.8%p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이익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더욱이 제조업 PMI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기업업황 회복도 기대된다. ② (금융 안정 소폭 개선) 위안화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다소 해소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조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2월부터는 3,200p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또 위안화 환율도 6.8위안/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추가 약세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다.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 3조 달러 이하로 감소했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에 다시 3조 9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편 ③ (과잉생산 해소 지연) 생산능력의 과잉 문제가 기업부문의 수익성, 경쟁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시장가격 하락,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설비 및 유희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들을 매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사이 주요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2~4%p씩 하

락하였다. 중국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고 공급조절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과다 부채 지속) 최근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25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가부채가 많다. 특히, 기업부채는 GDP 대비 약 16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레버리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⑤ (그림자 금융 확산) 신탁 및 위탁 대출 등 그림자 금융 부문 추정 항목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신용체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가운데 그림자 금융 항목으로 추정되는 위탁 및 신탁 대출 비중이 2016년 각각 7.3%, 4.3%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대략 GDP의 35~80% 비중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부동산 재고 소진 지연) 중국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 소진 정책이 큰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중국 전체 부동산의 재고 판매율을 계산하면 5.3으로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5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고 판매율이 5년 미만이 1개의 성에 불과하고 대부분 5년 이상 9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3·4선 중심의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방향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재고 소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는 실물과 금융 전반에서 안정 및 회복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잉생산능력,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부동산 재고, 그림자금융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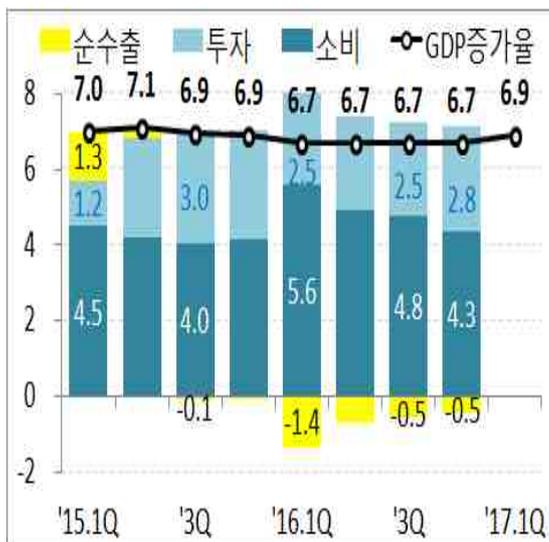
■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한편, 잠재 리스크도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간 협력 사업의 활용을 통해 對 중국 및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구조조정 성공에 따른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산, 부채 확대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뿐 아니라,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른 對 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잠재 리스크 확대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중국은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6%대 성장률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 소비의 GDP 기여도가 감소하는 가운데, 투자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소비자심리지수는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부진하는 등 향후 중국경제 향방에 불확실성도 상존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약화되고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최근 112.6p까지 회복됨
 - 반면, 미국發 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치 100p를 연속 하회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분기별 자료는 누적치 기준임.

< 중국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심리지수 > (p)



자료 : 國家統計局.

2.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① 회복 기대감을 주는 부문

○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소비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투자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

- 올해 2월 중국 소비(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0.4%보다 둔화된 9.5%를 기록
- 반면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분에 그 증가율이 작년 말보다 0.8%p 증가하면서 올해 2월 기준 8.9%를 기록함
- 또, 중국은 올해부터 對美, 對韓, 對日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도 빠르게 회복됨

- 기업부문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는 가운데, PMI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기업업황 회복 기대

-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이익구조가 개선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
- 제조업 PMI도 신규주문 및 생산지수가 상승하면서 꾸준히 확장세를 나타냄

< 중국 주요 실물지표 증가율 추이 >
(증가율,%)



자료 : 國家統計局, 海關總署.

< 중국 기업 수익성 및 PMI 지수 >
(증가율,%) (p)



자료 : 國家統計局.

주 : 기업은 공업기업(광업, 제조업)이며, PMI는 관방 기준임.

○ (금융 안정성 소폭 개선) 위안화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자본 유출 압력도 상당히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해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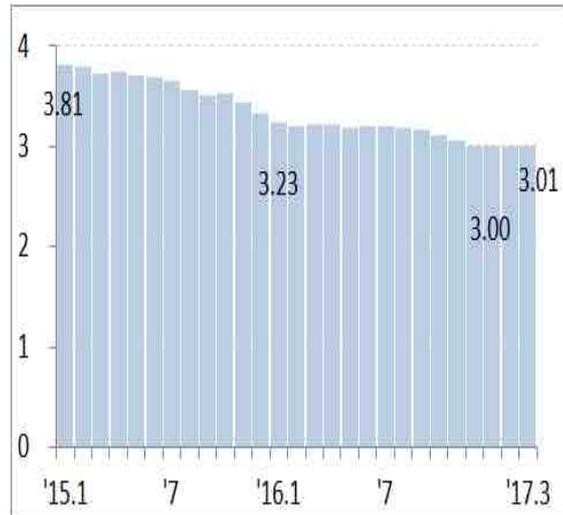
- 최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p 선에 안착하였고 위안화 환율도 급격한 상승세가 없이 안정세를 찾음
 - 2015년 당시 중국당국의 강력한 신용규제로 인해 6월 5,166p까지 치솟던 상하이 증시는 그 뒤로 폭락을 거듭하면서 2016년 1월 2,656p까지 주저앉음
 - 지난해부터 기업부문의 수익률 개선 등에 따른 제조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2월부터는 3,200p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세를 찾음
 - 또 위안화 환율도 6.8위안/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추가 약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됨
-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규모 자본유출 우려도 다소 해소되었음
 - 2015~2016년 중국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에 따른 환율변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규모의 자본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외환보유고 규모가 크게 감소
 - 2015년 1월 당시 3조 8,134억 달러에 달하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1월에 2조 9,982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3월에는 다시 3조 91억 달러로 회복

< 중국 위안화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
(p) (위안달러)



자료 : 上海证券交易所, 中國外匯交易中心.

<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
(조 달러)



자료 : 中國人民銀行.

②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문

○ (과잉생산 해소 지연) 중국의 생산능력의 과잉 문제가 기업부문의 채산성, 경쟁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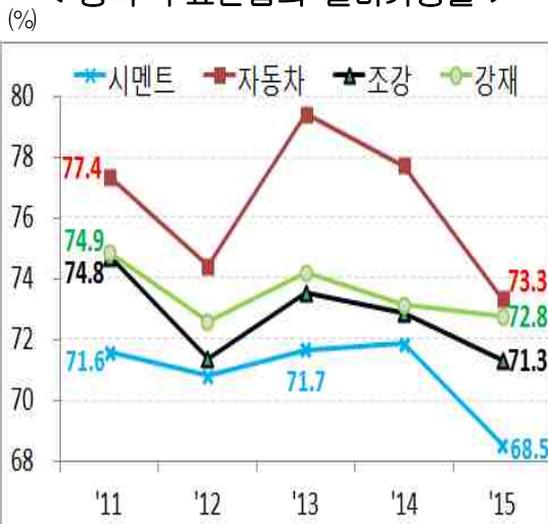
- 중국정부 주도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희설비 강제폐쇄 등 구조조정 조치로 인해 철강, 시멘트 등 산업의 설비가동률이 떨어지는 추세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시장가격 하락,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설비 및 유희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들을 매년 실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1~2015년 사이 조강(Crude Steel)과 철강재(Steel Product)의 설비가동률은 3.4%p, 2.1%p씩 하락했고, 시멘트와 자동차¹⁾도 3.1%p, 4.1%p씩 하락

-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공급조절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17년까지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 산업의 생산능력 추가 증축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으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시멘트 수요를 흡수하고, 스마트제조 및 고효율화를 추진하여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도 병행할 예정

< 중국 주요산업의 설비가동률 >



자료 : 國家統計局 자료로 HRI 계산.

<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정책 >

	생산량 감축 목표	조치
철강	'16~'20년 사이 최대 1.5억t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성, 품질,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설비 강제퇴출 - 신규 생산설비 도입에 대한 엄격한 심사·규제 - 연간 50~100일 생산정지 기간 설정 (시멘트 산업)
시멘트	'17~'21년 사이 최대 4천만t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산업재 해외수출 -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 추진 - 스마트제조 추진, 고효율화 추진 등

자료 : 國務院, 工業和信息化部.

1) 2017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과잉생산능력 관리대상 산업에 자동차도 추가할 것을 시사함.

○ (과도한 부채 지속) 최근 기업부채 중심으로 심각한 부채수준에 직면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전망

-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25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
 - 중국의 국가부채는 2016년 3분기 기준, 약 28조 달러로 전체 GDP의 255.6%이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
 - 특히,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동기준 약 16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계 부채도 비중은 43%로 낮으나 규모는 약 5조 달러로 미국 15조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레버리지율 감소 위해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는 2015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개혁을 제시하면서 주요 5대 임무 중 레버리지율 감소(去杠杆)도 포함²⁾
 - 올해 2017년 전인대에서는 부채율 축소를 위해 비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축소, 자산 증권화 및 부채의 주식전환 확대³⁾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 중국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 비중 > (비중, %)



자료 : BIS.
주 : 2016년은 3/4분기 기준.

< 주요 국가 및 지역별 부채 규모 >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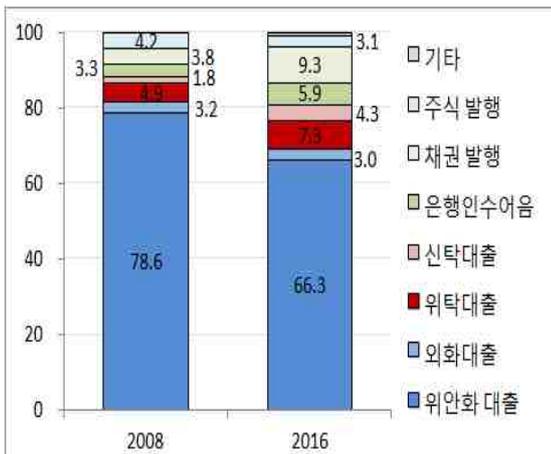
구분	2011(A)	2016(B)	B-A
미국	39,121	47,070	7,949
기업	10,282	13,408	3,126
중국	13,972	27,817	13,845
기업	9,277	18,090	8,813
일본	22,539	19,678	△2,861
기업	6,463	4,975	△1,488
유로	32,029	31,957	△72
기업	12,941	12,348	△593

자료 : BIS.
주 : 2016년은 3/4분기 기준.

2)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시진핑의 공급측개혁을 처음으로 제기, 2016년부터 과잉생산설비 해소, 부동산 채고 해소, 레버리지율 축소, 기업 원가절감, 유효공급 확대 등 5대 주요 과제를 제시함.
3)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고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종의 출자전환(Debt for Equity Swap, 债转股) 방식으로 중국 은감회가 부실채권 ABS 발행을 2016년부터 본격화하고 있음.

- (그림자 금융 확대) 신탁 및 위탁 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그림자 금융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신용체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됨
- 최근 중국의 용자총액 가운데, 위안화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신탁 및 위탁 대출이 증가하는 등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⁴⁾ 확대 우려가 커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사회용자총액 중 위안화 대출이 약 79%, 위탁대출 4.9%, 주식발생 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6년에는 동기준 위안화 대출은 약 66%로 감소한 반면 위탁 및 신탁 대출 비중은 각각 7.3%, 4.3%로 크게 늘어난 실정
-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한 추정은 기관마다 기준이 모호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GDP의 35%~80% 사이로 추정하고 있음
 - IMF는 2014년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약 3조 달러로 GDP의 35%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은 2013년 기준, 36% 수준임
 - 한편, 무디스(Moody's)와 JP 모건은 각각 2015년, 2013년 기준 GDP의 각각 80%, 81%로 추정하는 등 기관마다 차이가 존재
- 다만, 향후 위탁 및 신탁 대출 등 그림자 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해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사회용자총액 구성 비중 >
(비중,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사회용자총액이란 2011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유동성 지표로 위안화 신탁대출을 대체하는 개념.

< 중국의 그림자 금융 추정 >
(십억 달러) (비중, %)

구분	규모	GDP 대비 비중
IMF (2014)	19.9 조 위안 (3.2 조 달러)	35% ('14년 GDP)
UBS (2013)	28.4~39.8 조 위안 (4.7~6.6 조 달러)	50~70% ('13년 GDP)
Moody's (2015)	58 조 위안	80% ('15년 GDP)
JP Morgan (2013)	46 조 위안 (7.5 조 달러)	80.9% ('13년 GDP)
CASS	16.9 조 위안 (3.0 조 달러)	36% ('12년 GDP)

자료 : Brookings(2015.3), Moody's(2017.1).

4)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등 은행의 부외거래(off-balance sheet)를 통해 창출되는 신용과 신탁회사, 채무회사, 리스, 민간대출 등 비은행 금융권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으로 분류되며, 대표적으로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과 자산관리상품(WMP)이 있음(자본시장연구원, 2013).

○ (부동산 재고 해소 지연) 중국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 소진 정책이 큰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최대 9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현재, 중국의 부동산 재고면적은 약 83억 평방미터이며, 판매면적은 약 16억 평방미터로 중국의 전체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평균적으로 5.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지역별로 보면, 2015년 기준 산서가 11년, 북경 및 녕하가 9.8년으로 재고 소진이 가장 늦어질 예정이며, 전반적으로 7~8년이 걸릴 전망
- 이는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소진 방안이 실효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재고해소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줌
 - 2016년 초부터 1·2선 도시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증가하면서⁵⁾ 중국정부가 과열 방지를 위해 상기 지역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오히려 부동산 재고 소진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 중국 부동산 재고 판매율 추이 > < 중국의 31개 성별 재고 판매율 현황 >

(억 평방미터)



구분	성별 현황(2015년 기준)
9년 이상	- 산서, 북경, 해남, 녕하(4개성)
7년 이상 9년 미만	- 내몽고, 요녕, 길림, 복건, 서장, 흑룡강, 상해, 절강, 운남, 섬서, 청해(11개성)
5년 이상 7년 미만	- 강소, 안휘, 산둥, 하남, 호북, 호남, 광둥, 광서, 중경, 사천, 귀주, 감숙, 신강, 천진, 허북(15개성)
5년 미만	- 강서(1개성)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1) 상품방이란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말함.

주2) 상품방재고란 시공면적 + 미분양면적.

주3) 재고판매율란 '재고면적/판매면적'으로 재고해소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

5) 블룸버그에 따르면, 1선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2017년 2월 약 23%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0%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3선 도시는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음.

③ 종합평가

- **실물, 금융 전반적으로 회복 기대감을 주고 있으나 과잉생산, 기업부채, 부동산재고, 그림자금융 등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변동성이 재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최근 투자 및 수출 경기 회복으로 실물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됨
 - 내외수가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소득수준 향상, 일대일로 등 투자 확대에 향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자본유출 등으로 우려되었던 외환시장 불안정성도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로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성이 소폭 개선
 - 다만, 부채 증가, 그림자 금융 확대, 부동산 재고 등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가 지연되고 있음
 - 공급과잉 문제는 구조개혁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채 증가 문제는 구체적인 정책 대응 지연으로 단기적 해소가 어려울 전망
 - 더욱이 최근 유동성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이 확대된다면 신용체제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재고 문제도 1~3선 도시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3, 4선 재고 해소만을 위한 정책의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중국 경제의 종합 평가 >

구분		현황	전망
회복 기대	실물 경기	- 투자 및 수출 회복세 - 기업 수익 및 경기 회복	- 내외수 동반 회복 예상
	금융 안정	- 환율 및 주가 비교적 안정세 - 자본유출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 다소 완화	-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불안정성 재발 우려
잠재 리스크	공급과잉	- 설비가동률 하락	- 지나친 구조조정 강화로 관련 산업 경기 약화 예상
	부채 증가	- 총부채는 세계 2위 수준 - 기업부채는 세계 1위	- 단기적 레버리지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그림자 금융 확대	- 사회융자총액 중 위탁 및 신탁 대출 급증	- 유동성 약화가 지속되는 한 그림자 금융 확대는 지속될 전망
	부동산 재고 해소 지연	- 부동산 재고 소진 시간이 최대 9년 이상 소요 추정	- 부동산 규제가 전체 재고 소진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중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시장 확대와 구조적 리스크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對 중국 수출 품목 다변화 등 기회요인 발굴뿐 아니라, 돌발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
 -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소비재 품목 다변화 전략 필요
 - 소득수준·성별 및 연령대 별 니즈를 파악하여 타깃시장에 맞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신전략 모색
 - 또, 중국은 최근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온라인·모바일 유통채널 개발 전략이 필요
- 둘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간 협력 사업의 활용을 통해 對 중국 및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매개로 한 양국 간 협력 강화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앞당길 뿐 아니라 향후 지역경제의 공동이익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내, 對동남아, 對중양아시아 인프라투자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중국의 구조조정 성공에 따른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함
 - 중국의 과잉설비 축소 등 구조조정 조치는 단순히 노후·유휴설비 축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재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산업경쟁력을 적극 제고해야 함

- 넷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산, 부채 확대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뿐 아니라,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른 對 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
 - 중국의 그림자 금융 등 지하금융 확산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국내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사드보복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최소화뿐 아니라, 對 중국 진출 및 비즈니스 여건 악화에도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